"무집착의 자유가 〈금강경〉의 뜻"

순천 송광사, 제13회 금강산림대법회 회향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12월 5일 제13회 금강산림대법회를 회향했다. 지난 10월 17일 입재한 법회는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 자비선사 회주 지운 스님, 신행선원장 영명 스님,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진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금강경〉 특별법문과 천도재가 봉행됐다.



이날 회향식에서 초청법사인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은 "단순히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석, 재물,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의 자유를 얻는 것이 〈금강경〉의 참 뜻"이라며 "〈금강경〉을 통해서 집착을 떠나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자"고 말했다.

회향법회에는 특별법문과 천도재에 이어 법성도 요잡의식〈사진〉과 반야용선 소대의식으로 이어졌다. 한편 송광사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대승경전의 핵심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보다 가깝게 전하고자 매년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진화 스님은 "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법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장보살 · 시왕, 불자들 원력으로 세워

정읍 내장사, 명부전 지장보살 · 시왕상 점안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사 명부전에 지장보살과 시왕이 새롭게 조성됐다.

내장사(주지 도완)는 12월 2일 회주 대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명부시왕 점안법회,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내장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은 그동안 개금이 쇠락하고 단청이 탈락돼 많은 불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해왔다. 이에 주지 도완 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불사에는 장병택 문화재수리기능사가 참여, 전통방식으로 1년여에 걸쳐 지장보살좌상, 시왕상 10체, 금강역사 2체, 좌우 협시보처 19체를 복원했다.

주지 도완 스님은 "이번 명부전 지장보살 및 시왕상 조성불사는 신도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원력이 표출된 것"이라며 "내장사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한국불교를 이끄는 신행포교 중심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들이 차린 외롭지 않은 생일상

탑사 · 쌍봉사, 소외계층 어르신 초청 생신잔치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소외계층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은 12월 1일 전주 라루체 뷔페식당에서 홀몸 어르신 등 가족과 떨어져 사는 소외계층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성대한 생신잔치를 열었다.〈사진〉 이날 생일잔치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생일케이크를 앞에 두고 함께 노래하며 외롭게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또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 선물이 주어졌으며,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겨울이불이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늦었지만 홀로 생일을 맞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다는 생각에 5년째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했던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성 스님 "봉사를 수행 방편으로 정진"

제18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취임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한국불교태고종 제18대 전북종무원장에 취임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12월 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17대 종무원장 도광 스님과 18대 종무원장 진성 스님 이 · 취임법회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덕화 스님,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이항로 진안군수, 등 정관계 인사 포함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구 혜인정사 불자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의 영산대재 시연으로 막을 올린 이날 법회는 △이임사 △감사패 증정△임명장 수여 △종무원장 약력보고 △취임사 △승가 종도발전기금 전달 △법어 △격려사 △축사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광대한 부처님 지혜는 허공과 같아 일체중생의 마음에 두루하고 삼세법을 모두 알아 일체중생의 근기도 모두 요달하셨다"는 〈화엄경〉 게송을 설한 뒤 "새롭게 취임하는 진성 스님을 중심으로 전국제일 교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도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무원장이라는 영광과 명예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취임을 맞게 됐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사부대중이 뜻을 같이 한다면 전북종무원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

영광 · 명예보다 책임감으로
전국 모범교구 발전 다짐
5원제도 확립 · 장학회 설립
대사회 역량강화 나선다

구 원로회의 확대를 통해 어른스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승가본연의 수행가풍 진작과 화합승가를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진성 스님은 또 "종무원과 지방종회, 지방사정원, 교육원, 포교원의 5원제도를 확립, 영산작법 보존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전시관 운영을 통한 불교문화 가치의 세계화, 태고불교문화대학과 불교교양대학 설립, 태고진묵장학회 설립, 자비나눔활동을 통한 대사회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임기 중 전북교구가 전국의 중심교구이자 한국불교의 모범교구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오른쪽)이 새로 취임한 진성 스님에게 '태고종효광'이라고 적힌 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제17대 종무원장 도광 스님은 "개인적으로 향상된 삶의 이정표였고 종무원 청사가 마련되는 등 보람된 일이 있었다"고 지난 8년간의 임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새 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과 상생을 기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도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의 중요 현안마다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전북발전에 앞장선 진성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태고종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표종단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취임식에서 도광 스님은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무형문화재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 주지)는 종무원발전기금 500만원과 태고진묵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새해 초 전국 태고종 사찰들과 함께 2023세계잼버리대회 성공기원 용왕대재를 영산작법 보존회와 함께 성대히 봉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동율맥 스승의 정신을 기리다

담양 용화사, 12월 3일 해동율맥탑비 제막식

한국불교 해동율맥 스승들의 정신을 기리는 탑비가 조성됐다.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2월 3일 경내에서 '부처님 사리탑 및 해동율맥 탑비 제막식'을 봉행하고 해동불교 율맥을 상징하는 탑비를 조성했다.

조선 선조시대의 제1대 대은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해동율맥은 금당보명, 초의의순, 범해각안, 제산정원, 호은문성, 금해관영, 만암종현, 묵담성우, 혜은법홍에 이어 제11대 수진 스님까지 이어졌다. 이에 용화사는 율맥 스승들의 탑비를 제막하고, 이를 기념하는 부처님사리탑을 함께 조성했다. 또한 9대 율사인 묵담 스님의 삶과 사상을 담은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도 봉헌했다.



해동율맥탑비 제막식에서 내빈 스님들이 탑비 제막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 등을 비롯한 여러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이개호 국회의원,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막을 축하했다.

혜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스님들을 선양하는 수진 스님에게 감사드리며, 선 · 교 · 율에 큰 족적을 남기신 묵담 스님 가르침을 널리 펴기를 기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문에 앞서 행사를 준비한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법석은 묵담 대종사의 탄신 121주년을 기념해 탑비를 조성하고 책자를 발간했다. 후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교수들이 참여해 묵담 큰스님의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게 됐다"며 "향후 많은 분들이 묵담 스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는 1부 불공의식과 종산영반, 2부 묵담 대종사 책자 봉정식, 3부 불사리탑 및 해동율맥 11대 율사 탑비 제막식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경찰서 경승 위촉

부안 경찰서 경찰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할 경승이 위촉됐다.〈사진〉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12월 5일 서내 강당에서 경승 위촉식을 열고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 혜원사 주지 정원 스님을 부안경찰서 경승으로 위촉했다. 경승위원장에는 진성 스님이 임명됐다.

진성 스님은 "오늘 위촉받은 경승위원회의 여러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민 · 경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민 서장은 "경찰관들이 불교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탈종공고

• 법 명 : 지현(황정예)
• 승려증번호 : 0186-0174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연화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28-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